

文鄉의 脈을 이을 江陵大學

崔 至 燕

(江陵大 學長)

1. 머리말

江陵大學은 1979년 政府 方針에 의하여 2년제 江陵教育大學을 4년제 一般大學으로 轉換시킴으로써 개교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80년대의 高度 産業化 社會를 目前에 두고 급증하는 고급 인력의 需要에 대처하고, 大學教育의 지방 분산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5개 교육 대학을 4년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

영동 지방에 강릉대학이 신설된 것은 앞에서 말한 국가적 시책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보다 더 큰 意義를 갖는 것은 영동 지방에 처음으로 국립 4년제 일반대학이 세워진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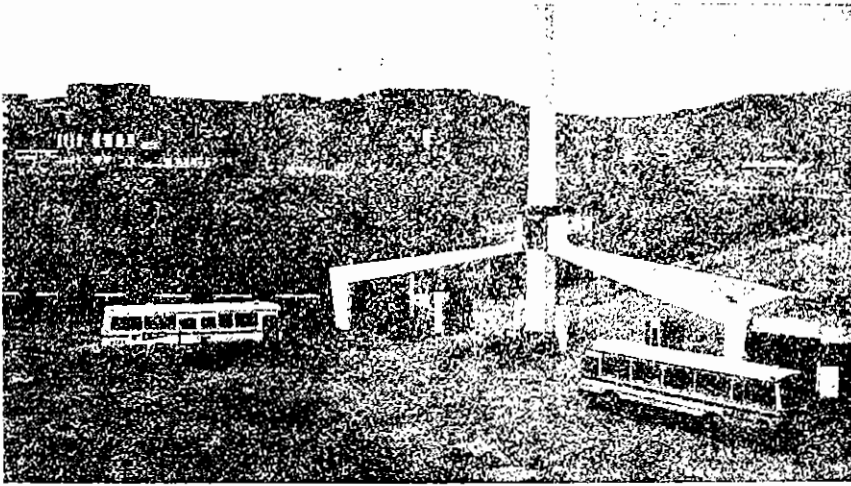
강원도는 타도에 비하여 산지가 많고 기후·입지 조건이 불리해 소득이 뒤떨어지며 道勢가 약한 데다가 태백산맥을 경계로 하여 嶺西圈과 嶺東圈이 확연히 兩分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嶺東圈은 그 地理的 位置가 遠隔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항상 教育과 文化的 惠澤에서 疏外되어 온 지역이다. 이러한 嶺東地方에 江陵大學이 설립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子弟教育과 地域 社會 文化 發展에 測期的인 意義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립 배경을 통해 볼 때 江陵大學의 建學理念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大學의

奉仕와 寄與에 더 큰 力點이 두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江陵大學의 建學 理念의 特徵을 한층 더 뚜렷한 것으로 규정짓는 轉機를 마련하게 된 것은 大學 캠퍼스의 移轉이었다. 개교 후 4년 뒤인 1983년에 강릉시 지변동으로 대학을 이전하였는데 새 캠퍼스가 자리한 지변동은 성현 栗谷 李珣가 탄생한 유서 깊은 烏竹軒의 바로 옆에 위치하는 곳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栗谷先生은 고결한 인격과 심오한 학식으로도 崇國愛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實踐的이고 現實的인 爲民改革政策을 추구한 점에서 많은 後代 사람들의 尊崇을 받아 온 인물이다. 江陵大學의 캠퍼스 移轉은 이러한 聖賢 栗谷先生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었으며, 이 정신은 江陵大學의 建學의 背景과 理念인 심오한 학문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를 하고자 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역 사회 문화 창달과 산업 개발이라는 지역적 여망에서 세워진 강릉대학의 建學 理念은 심오한 학문을 통한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여로 요약될 수 있다.



◀ 강릉대학은 栗谷先生의 탄생지인 강릉시 지변동으로 캠퍼스를 이전, 읍곡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건학 이념의 구현에 새로운 궤를 마련하였다.

2.沿革과 現況

江陵大學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建學 背景과 理念 아래 1979년 강릉시 초당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강릉교육대학(초당 캠퍼스)에서 6개 학과(경영·무역·회계·지역개발·음악·미술)로 개교하였다. 그러나 초당 캠퍼스는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강릉대학의 캠퍼스로는 부적합하

다는 판단이 곧 내려져 개교 4년 후인 1983년에 강릉시 지변동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1986년에 이전 완료하였다.

새로 자리잡은 지변 캠퍼스는 뒤에는 태백산맥의 峻嶺에서 내려 뺀 支脈을 배경으로 하고 앞으로는 광활한 경포 호수와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18만 평의 대지 위에 웅장한 대학 건물들이 건립되고 있다. 1983

〈표 1〉 1983~1988년 6년간 양적 성장

| 구분 | | 연도 | 1983 | 1988 |
|-----------------------------------|-----------|----|---|--|
| 학 | 과 수 | | 국문, 영문, 독문, 경영, 회계, 무역, 지역, 통계,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13개 학과) | 국문, 영문, 독문, 철학, 경제, 경영, 회계, 무역, 지역, 법학, 수학, 통계, 전자계산, 물리, 대기, 과학, 화학, 생물, 식품, 수산자원개발, 원예, 음악, 미술, 산업공예, 체육(24개 학과) |
| 학 생 수 | 재 격 학 생 수 | | 2,409명 | 3,892명 |
| | 제 학 학 생 수 | | 1,782명 | 2,726명 |
| 교 | 수 수 | | 84명 | 113명 |
| 사 부 직 원 수 (고용직 포함) | | | 74명 | 102명 |
| 교 사 면 적 (동 수) | | | 2동 12,378m ² | 7동 34,580m ² |
| 교 지 면 적 | | | 지변동 571,751m ² 초당동 121,602m ² | 609,917m ² |

년 이전 이래 지금까지 5년 동안 건립된 대학 건물은 인문사회학관, 자연과학 1호관, 예술관(미술관·음악관·아트홀 등), 학생회관,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이며, 현재 자연과학 2호관, 산업공학관과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착공 건립중에 있다. 앞으로 대학 본부와 강당이 건립되면 1단계 대학 건물 건립 계획은 대책으로 완성을 보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대학 캠퍼스의 확충과 함께 학과 증설과 부속 기관 및 연구소 설치도 계속 추진되어 1988년 현재 6개 학부 24개 학과와 6개 부속 기관, 6개 연구소가 설치되었으며, 대학원에 지역개발학과와 물리·화학·생물학과의 각각 신설되어 대학의 연구 기능을 한층 더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9년 設立 당시 綜合發展計劃에 의하면 정부 시책에 따른 基礎科學 분야, 外國語 분야, 經商 분야를 우선 증설하고 그밖에 嶺東地方의 特性을 고려한 農水産 분야와 師範系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發展 方向을 設定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江陵大學의 學科는 정부 시책에 의하여 증설이 억제되고 있는 師範系 분야를 빼놓고는 대부분 大學 綜合發展計劃에 樹立된 발전 방향에 따라서 增設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대체로 모아서 앞서 살펴본 江陵大學의 建學 背景과 理念에 合致되는 것이다.

3. 質的 秀越性的 追求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江陵大學은 지난 9년 동안 大學의 建學精神에 따라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와 함께 質的 內質과 秀越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받는 불가피한 制約, 즉 모든 국립대학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一律性과 大學 規模의 矮小로 말미암아 江陵大學이 獨自的으로 追求하는 質的 秀越性을 위한 노력은 스스로 한계성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한 與件 속에서도 江陵大學이 추구해 온 質的 內質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 채용 제도와 학술진흥재단

대학교육이 그 秀越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수들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릉대학의 이에 대한 노력은 전임 교수의 높은 확보율에 반영되어 있다. 1988년도에 편성된 교수의 소요 인원은 121명인데 확보된 교수의 소요 인원은 112명으로 확보율은 92.6%이다. 한편 전임 교수당 학생 수도 1987년 24.5명, 1988년 24.3명으로 단과대학 평균 28.21명, 종합대학 평균 35.04명에 비하면 좋은 상태이다.

이러한 전임 교수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대학의 秀越性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하고 교수들의 연수와 연구의 여건을 개선하고 그 지원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江陵大學은 國立大學이라는 여건 때문에 아직도 획기적이고 독자적인 쇄신책이 강구되어 있지 못하나 엄격한 공채에 의한 교수 임용이 점차 정착화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 교수 112명 중 현재 학위 소지자는 38명(33.9%)이고 학위 과정중인 교수는 40명(35.8%)인데, 전국 종합대학 평균 학위 소지율 46.96%보다는 낮으나 전국 단과대학 학위 소지율 평균 25.02%보다는 높은 편이며, 강릉대학의 역사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전국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강릉대학이 교수 신규 임용에 있어서 공채를 꾸준히 지속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교수들의 연수를 위한 해외 파견이나 연구를 위한 지원은 아직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뉴욕주립대학인 울드웨이스트베리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 1년간의 교환 교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987년에는 자체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자산 증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장학 제도 및 학생 조합

대학의 질적 내실은 우수한 학생을 모아서 양호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된다. 강릉대학은 현재 영동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과반수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있는 대학이나 종합

대학을 찾아서 외지로 진학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전통적인 國民 潛在意識에도 그 이유가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 大學의 태반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고 教育 與件의 質的 隔差도 크기 때문이다. 이는 地域 成長의 障礙가 됨은 물론 地域 住民들의 家計 經濟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 江陵大學은 教育의 內實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생의 장학 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모색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88년 장학금 총액 예산 지원액은 5억 8천 5백 만 원에 달하고 전체 학생의 30%가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강릉대학이 학생들의 복지 후생의 개선을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학생 소비 조합의 운영이다. 교직원과 학생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소비 조합은 영리보다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운영 수익금은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조합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학생 면학의 장려를 위한 장학 기금으로 투입된다. 학생 소비 조합의 공급 범위는 식당, 매점, 자동 판매기, 복사실은 직영하고 구내 서점, 이발소 등은 임대 운영하고 있다.

기타 학생 복지 시설로서 강릉대학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기숙사 운영이다. 현재 80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88학년도 중에 6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기숙사 운영 역시 완전한 입주 학생의 자율적 운영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3) 우수한 교육·연구 시설의 확충

江陵大學이 개교 후 10여 년 동안 새 캠퍼스 건립과 함께 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力點을 두었던 것은 대학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시설과 기자재 확보이다. 그러기 때문에 特性的 施設의 確保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視聽覺室, 自然科學館, 電子計算所, 藝術館(미술관 및 아트홀), 體育館 등은 모두 내용의 충실화에 노력하여 얻어진 所產物이다.

(1) 視聽覺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 규모의 시청각실로서 16mm 영사기, 슬라이드, 120" 스크린의 비디오 프로젝터 등 시청각 기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영상 및 음향 매체를 이용하여 영화 필름 및 슬라이드는 물론 비디오 테이프 등을 120"의 스크린에 확대하여 시청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음악·미술·체육 교육에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다.

(2) 自然科學館 및 電子計算所

物理·化學·生物 등 기초과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 건립된 자연과학관은 I.B.R.D. 차관에 의해서 기본적인 기자재가 대부분 구비되어 있고, 서독 Brüker社에서 제조된 80H Hz의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다목적 현미경, 전기 연동 장치 일체, 고속 액체 분석기 등 高價精密機器들이 계속 도입중에 있다.

高度의 産業人力의 養成 및 폭주하는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電子計算所에는 VAX 8350 system, 용량 32 Mega Byte 1대와 단말기 50대 및 주변 기기를 갖추고, 학생 터미널실과 교수 전용 터미널실 및 기계실을 계속 확대하여 본 대학의 정보 전달 및 처리 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3) 아트홀

총 좌석 수 375석의 연주 홀은 냉·난방 시설 및 부대 조명 장치와 음향 시설, 방음 시설, 실내 시설이 우수하며, 연주 홀에는 독일 제품인 Grand Piano Steinway & Sons가 비치되어 있다.

강릉대학의 아트홀은 영동 지방의 유일한 음악 전용 연주실로서 지역 사회를 위한 음악 연주에도 공개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4. 地方文化 창달과 地域開發의 先導의 역할

江陵大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편재된 大學 施設을 지방 도시에 분산·육성하여 教育 機會의 均等化를 꾀하려는 政府의 大學教育 政策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또한 大學의 기능도 社會構

造의 多邊化와 開放社會로의 轉換에 따라 종래의 상아탑적인 교수 및 연구 기능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奉仕機能으로 차츰 전환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江陵大學이 地方大學으로서의 地域에 대한 役割과 使命은 막중하다. 江陵大學이 地域開發學科를 大學의 特性學科로 選定한 것이라든가 水産資源開發學科, 園藝學科 등을 설치한 것 그리고 부설 연구소로서 嶺東問題研究所를 우선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와 산업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모두 그러한 맥락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대학 부속 박물관에서 지역 사회의 역사와 민속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대학의 미술관이나 아트홀(음악관)을 지역 사회에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문화 혜택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嶺東地域의 文化暢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江陵大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地域課題 解決을 위한 몇 가지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嶺東産業問題研究所

1983년에 설치된 本 研究所는 기업 문제 연구실과 지역 개발 연구실을 두고, 전자는 영동 지방 기업의 경영·노사 문제·판매·세무 등을 조사·연구하고, 후자는 국토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개발·지역 도시 개발·교통 문제·산업 입지 및 시설·관광 실태·휴양지 등 국토와 환경에 관한 제반 조사·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세미나 개최 및 교육 훈련 사업도 병행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소가 수행해 온 중요한 업적을 보면, 1984년 문교부 지원에 의한 ‘江陵 中小企業工團 活性化

에 관한 研究’, 1985년 ‘江陵圈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한 간담회’, 1986년 ‘종합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 처리 계획’, 1988년 ‘농어촌 종합 개발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定期刊行物인 「商經論叢」, 「嶺東開發研究」 등에 게재되고 있다.

그밖에 1985년에 설치된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嶺東地方의 民俗과 歷史研究에 주력하고 있으며, 1985년에 설치된 자연과학연구소에서도 嶺東地方의 生態界 및 環境汚染 등을 연구중에 있다.

2) 博物館

本 大學 博物館은 江陵教育大學의 향토관을 계승하여 1979년 江陵大學 開校와 함께 大學 附屬 博物館으로 발족하였다. 嶺東地方에는 아직까지도 國家나 地方 單位의 박물관이 全無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역사와 민속 관계 유물을 수집·전시할 만한 장소가 없다. 강릉대학은 지방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郷土愛의 精神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본교 박물관에는 地域社會에서 수집된 1,500여 점의 민속 및 역사 관계 유물이 수집·전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嶺東地方의 선사 및 歷史遺蹟 조사·연구도 박차를 가하여 1977년에 新石器時代 遺蹟인 양양군 오산리 유적을 찾아 내어 고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1983년에는 초기 철기 시대의 주거지인 양양군 가평리 주거지의 발굴, 統一新羅時代 九山禪門 중의 하나인 명주군 巖山寺址의 발굴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